



법인실무편

스톡옵션 그것이 궁금하다

MIT  Medi Information Teacher



한국경영전략연구소
Korea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ermission of Korean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스톡옵션 그것이 궁금하다

요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스톡옵션’ 관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톡옵션’이란 주식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사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 왜 도입할까?

1. 능력 있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치가 올라가면 급여로는 얻기 어려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톡옵션을 ‘직장인들의 황금 수갑’이라고도 합니다.

2.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유인책

회사 여건상 현재 시점에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기에는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우수한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연봉 외에 스톡옵션을 함께 주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회사가 무분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됩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 비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당해 법인 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한 것처럼 임원도 부여 대상자에 포함되나, 스톡옵션이 대주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임원에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 있어야

스톡옵션을 회사에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회사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정관 규정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관의 모든 내용이 “등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스톡옵션 규정은 대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처음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 변경(정관에 스톡옵션 규정 삽입하는 건)과 스톡옵션 부여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스톡옵션 규정 변경등기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 결정 및 부여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근거가 있다면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면 됩니다.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1)부여할 자의 성명, 2)부여 방법, 3)행사가격, 4)행사기간, 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여방법

스톡옵션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신주발행),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 보유 주식을 주거나(자기주식 교부), 행사가액과 시가와 차액을 돈으로 주는(차액지급) 이 3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신주발행”입니다.

2. 부여한도

그렇다면 스톡옵션은 얼마만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법에서는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스톡 옵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수를 제외한 전체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벤처 기업은 50% 이내로 가능합니다.

3. 행사가격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이상을 행사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4. 행사기간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할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행사기간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주주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 2)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스톡옵션이 있는 임직원을 권고 사직할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지나 회사가 정한 행사기간이 되면 해당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스톡옵션은 행사기간 내에서 (2~5년) 분할해서 행사도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일괄과세 됩니다.(퇴직 후 행사 시 기타소득)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주당 1만원이고 행사 시 시가가 주당 10만원이라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 차액은 9만원에 부여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대금과 함께 회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데 2022년 행사분부터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